

# 정보란 바깥때 필요한 것이다.

“저어...그것 어디 있어?”라고 가족들에게 물었다.

“뭐요?”하고 되묻는다.

타이밍 맞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건망증 때 문인지 그 용어를 깜빡 잊어버렸다.

“저어...그거 있잖아?”하면서 손으로 네모를 그려 보였다.

그러나 기다리다 못해 “통과!”라고 포기를 선언한다. 원, 성질도 급하지...

“아참, 생각났어. 의료보험카드”라고 위대한 발명을 한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오늘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갈 참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단어로 인식시켰다.

누군가가 “그거 여기 있잖아요?”라면서 쉽게 찾아서 건네 주었다.

여기서는 “의료보험카드”가 키워드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고유한 단어로 정보를 찾은 것이지 손으로 그려보인 네모 그림으로 찾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물이나 상황인지는 정확한 단어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소리,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기억해두기도 한다.

흉악범의 이름이나 식별번호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만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범인의 모습을 그린 이른바 ‘몽타주’로 식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즘은 농촌도 제법 현대화가 되어서 이런 상황 설정은 현실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20년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은 흔히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평범하면서도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다. 이 농부는 매일매일의 노동에 피곤해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도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논매기’를 하여야 한다. 아무도 ‘논매기’를 도와

주지 않는다. 혼자서 자기 소유의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피곤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새참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기척이 없다. 그래서 농부는 피를 내어 본다.

“에라, 참을 가져올때까지 좀 쉬자”라면서 팔을 베고 논둑에 눕는다. 피로가 쌓여서인지 금방 잠이 오는것 같다. 비몽사몽간에 발바닥에 이상한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

비록 촉감이 둔한 발바닥이지만 ‘물컹하고 길죽한 무엇’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발바닥 신경은 즉각 이 ‘물컹함’과 ‘길죽함’이란 두가지 키워드를 두뇌속에 있는 데이터 뱅크로 보낸다.

답을 내기 위해 데이터 뱅크는 아마도 세가지 키워드를 검색하였을 것이다. ‘한여름’, ‘물컹함’, ‘길죽함’... 그밖에도 혹시 ‘논두렁’이란 요소도 검색 조건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두뇌는 데이터 뱅크를 뒤져 판단한다. 한여름에 물컹하고 길죽한 물건이 논두렁에서 움직인다면 이것은 ‘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한가지 판단은, 그것이 뱀이 확실하다면 ‘독사’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자율신경에 경고지시를 할것이다. 물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고...농부는 잠을 자면서 발을 움추리게 된다.

만일 이 농부가 눈을 뜨고 있었다면 뱀을 직접 봤을 것이고 그렇다면 순식간에 독사인지는 아닌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독사일때만 의식적으로 피했을 것이다.

만일, 이 뱀이 방울뱀과 같이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면 눈을 뜨지 않고서도 귀로서 방울뱀이라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면 코로도 알아낼수 있었을지 모른다.

잠을 자고 있는데 입속으로 맛을 보기가 하라만 맛으로도 실제과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에는 5관이 있다고 하지 않은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또 맛을 보는 등 다섯가지 감각으로 삼라만상의 정보를 머리에 입력하고 있다.

정보를 찾아낼 때는 일반적으로 '단서' 라고도 하고 '꼬투리' 라고 해서 다섯가지 감각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글자로 기록해두는 단서나 꼬투리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단서나 꼬투리가 키워드이다. 정보검색에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키워드 만 들기가 너무나 미약하다.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키워드라면 흔히들 이름 석자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임에 틀림없으나 우리나라에는 同名異人이 너무 많아 이름만으로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가 한번은 경찰청의 컴퓨터에서 "유경희"란 키워드로 필자를 찾아봤는데 없다고 나왔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라고 문의하였더니 담당자의 말씀이 의외였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의 함자중 성씨가 혹시 버들류씨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럼 유경희로 찾으면 만나웁니다. 류경희로 찾아 보십시오"

과연 류경희로 등재되어 있었다.

"왜 류경희입니까?"

"차류종친회에서 버들류는 '유'로 안쓰고 '류'로 쓰기로 했다는 공문을 접수해서 그렇게 입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인식별을 위한 최선의 기술인 "주민등록번호"로 식별하는 수단을 맨처음 활용하게 된 것이다.

정확한 개인식별을 위하여 이걸 사용하는 것은 좋는데 이것을 기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교통경찰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차선 위반입니다. ...법 제..조 위반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주십시오" 차선 위반자는 어쩔수 없이 면허증을 제시한다.

면허증을 건네받은 교통경찰은 위반사항, 시간, 장소, 위반자에 대한 정보 등을 양식에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 소위 딱지를 끊는 것이다.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정확히 재본적은 없지만 대략 10분쯤 걸리는 것 같다. 운전자의 바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야말로 천천히 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시간도둑의 주범은 주민등록번호임에 틀림없다.

필요한 정보나 물건을 찾을 때 사람들은 완전히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더욱이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검색할 때에는 정확한 '질문절차'에 따라서 찾게 마련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해진 절차마저 기다리지 못하는 수가 많다.

마치 대화할때 타이밍 맞게 답변을 하지 못하면 "통과"라고 포기를 선언하여 버리는 경우처럼 말이다. 가령,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검색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1분 걸린다고 하자. 이용자들은 불과 30초 정도를 기다리다가 "응답이 너무 느리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은 정보를 찾아낼 때 정말로 초고속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데이터베이스일지라도 이용자로부터 외면을 당해버리게 마련이다.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바쁜 사람들이다.

적시에 검색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의 소재에 관한 정보만 제공한다면 원문제공을 위해서 다시 시간이 더 소요된다면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하기가 일쑤이다.

오늘날의 정보이용 습관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마치 요즘의 대화의 습성이 옛날과 달라진것과 같다고나 할까? 정보시스템도 대화문화의 변화에 맞추어서 변혁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